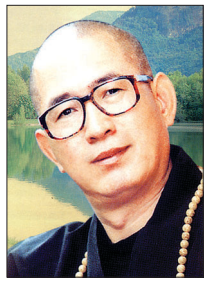


문화 단신

깨달음의 禪詩, 노래로 피어나다

제주 불광사 우란분절 맞아 한여름 밤의 특별 콘서트

옛 선사들의 선시를 번역해 한국의 아름다운 오음계 가락에 맞춰 불음으로 전하는 '제4회 달빛 고운절 솔바람 파도소리 불광사 한여름 밤의 특별콘서트'가 8월 10일 제주 불광사(주지 지법)에서 개최된다.



등은 세상 사람들의 오욕락에 허덕이는 삶을 애뜻한 심정으로 읊는 노래"라고 이번 선시 음악회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는 지법 스님(사진)은 "지난 2008년 우란분절을 맞아 부처님의 '효(孝)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부모은중경'이란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며 "올해는 옛 선사들이 깨달음인 선시를 노래로 엮은 만큼 대보름달빛 아래 동창한 사부대중의 불심도 두들길 때요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법 스님은 "선사들이 깨달음의 법음을 노래하는 선시는 한 편을 듣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의 번뇌를 벗는 위로가 될 것"이라며 "나옹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 태고보우 스님의 '경세가'

1992년 '지법 스님이 불음 가수'로 활동하게 된 사연을 담은 TV프로그램 방영을 시작으로 김순엽 남도명창의 '썩대머리'를, 가야금 연주자 김지혜 씨의 '달빛 밝은 이 밤에' 등을 연주, 여름밤의 운치를 더한다. 이어 시각장애인인지만 불교적 가사로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흥관수 씨의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가수 김민수 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소프라노 오능희 씨가 노래를 선사한다.

정혜숙 기자

문화공간 숨도, 선풍기 영화제 개최

7월 29일~8월 2일

한여름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를 틀어 놓고 영화를 보면서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행사가 마련됐다.



선풍기 영화제 포스터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 문화공간 숨도가 7월 29일~8월 2일 숨도 7층에서 '2014 선풍기영화제-다큐 페이크 다큐'를 연다.

4회째를 맞는 선풍기 영화제는 이름 그대로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영화를 보며 여름을 나자는 친환경적 의미를 담고 있다. 숨도는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주는 영화다. 다큐가 지닌 경계의 매력을 선풍기 영화제에서 확연히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 코아니스 카시(7월 29일)△북극의 나루크, 더 코브(7월 30일)△나의 설계자 그리즐리 맨(7월 31일)△지코의 꿈, 개를 문 사나이(8월 1일)△핑큐, 마스터 킴, 포토그

래픽 메모리(8월 2일) 등으로 구성되며 상영시간은 오후 8시, 5시 두 차례다. 또한 8월 2일 오후 3시에는 소주제인 '다큐 페이크 다큐'의 성격을 반영한 단편영화 '아이콘을 찾아서'와 '이상한 나라의 금기들'이 특별상영된다.

팁블러 혹은 개인컬프로 짐작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으며 신청은 soomdo@naver.com으로 하면 된다. 1인당 영화 4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 1인까지 가능하다. (02)717-3535

정혜숙 기자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뮤지엄스테이'

강원 원주시 치악산 명주사의 고판화 박물관(관장 한선화)이 제10회 '뮤지엄스테이'를 개최한다. 산사와 박물관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자연과 문화 속에서 명상을 체험하는 '뮤지엄스테이'는 8월 2일~9일, 8월 9일~10일 각각 열린다.

프로그램으로는 목판화 T-셔츠 만들기, 목판화 만들기, 전통 책 만들기, 명상 체험, 사찰음식 체험은 물론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뮤지엄 라이프'도 진행된다. (033)761-7885

정혜숙 기자

8월 전국은 연화장 세계로 빠져든다

전국 곳곳 연꽃 행사 풍성

수려함과 고결한 풍요로움의 연꽃은 세속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 완성과 원만의 경지를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육법공양에서 울리는 꽃, 향, 초, 탕, 과일, 차 중 꽃 공양이 으뜸인데 그 중에서도 연꽃 공양을 제일로 친다. 그만큼 연꽃은 불교를 대표하는 꽃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꽃이 만발하는 여름이면 연꽃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가족, 친구 혹은 연인들과 손 잡고 연꽃을 감상하며 축제도 즐기며 즐거운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보자.

2014 무안연꽃축제는 '백련과 함께, 백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8월 14일~17일 화산백련지와 무안 체험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는 품파, 군민 합창대회, '레이저 대북' 퍼포먼스 등의 공연은 물론 제8회 전국 연(蓮)요리 경연대회도 열린다. 8월 15일 '나·蓮, 귀한 사람을 위한 음식'을 주제로 한 '전국 요리 경연대회'는 무안백련지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과 대중화를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태안연꽃축제는 태안군 남면의 청산수목원에서 8월 24일까지 열린다. 3만 평 규모

의 연못에는 200여 종의 연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수생식물 100여 종이, 수목 및 야생화 300여 종이 갖가지 모양과 색깔을 뽐낸다. 정원은 예연원, 만의길, 고호브리지, 연꽃문화관 등 테마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불교를 상징하는 '만(蓮)'자 모양의 길은 이곳을 다녀간 모든 이에게 길상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연꽃전시, 소원지 걸기, 비누 만들기, 연잎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무안연꽃축제-연요리 대회 눈길

태안연꽃행사-연꽃 200여종 장관

봉원사 연꽃문화제-산사음악회

봉원사 서울연꽃 문화축제는 도심 한복판에서 연꽃 축제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8월 17일~23일 신촌 봉원사 경내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연꽃을 배경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와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한지공예, 도자기 만들기 체험, 민화전시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8월 23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오승근, 국악인 남상일, 국립국악원단원, 국립무용단원 등이 출연해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전국에는 지금 연꽃 축제가 한창이다. 사진은 지난해 신촌 봉원사 서울연꽃 문화축제, 올해는 8월 17일~23일신촌 봉원사 경내에서 열린다.

전북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는 8월 17일

17일 까지 하소백련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행사는 '사랑, 이별, 고통, 정토(세월호에 묻다)'를 주제로 하소백련의 향기가 세상의 상처받은 이들에게 큰 위안과 치유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행복을 전해주는 고차하는 뜻에서 마련되었다. 부처에 연꽃 그리기, 백련을 이용한 염색체험, 백련차 시음회, 백련 관련 음식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체험할 수 있다.

경기 양평군 세미원에서는 7월 한달간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사랑의 연못에서는 김명희 작가의 테라코타전 '우리들의 이야기' 등이 전시된다. 또한 7월 31일까지 세미원 야외 체험장에서는 천연염색순수건만들기, 전각체험, 부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린다. 세미원은 연꽃이 만개하는 8월 15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관람 시간을 연장해 관람객들이 연꽃의 정질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남도 사찰 옛 모습 빛바랜 흑백 필름으로 조우

2014년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시...8월 17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은 2014년도 테마전시로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남도 사찰의 옛 모습'을 개최한다.

8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인 20세기 초반에 촬영된 전라남도 사찰건축과 문화재를 사진 40여 점으로 만날 수 있다.

호남지역에 불교가 전래되고, 사찰이 건립된 시기는 승려 마라나타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이후이다. 영광의 불갑사는 마라나타가 최초로 세웠다고 전해지지만, 본격적인 불교의 융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다.

통일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를 이끌었던 5교 9산 중 선종의 가지산문 '장흥 보림사', 동리산문 '곡성 태안사' 등이 있다. 이 사찰들은 전라남도의 불교진흥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이 시기의 석조문화재들은 지금도 남아 있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조계종이 순천 송광

사를 근본도장으로 크게 일어나고, 천태종이 강진 백련사를 중심으로 백련결사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라남도도 불교 중흥의 중심이 되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불교가 위축되었으나, 이 지역의 불교는 산지사찰(山地寺刹)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고 지금도 조계종의 25교구 분사 중 5개가 전라남도에 자리하고 있다.

송광사·화엄사·선암사 등

100여년 전 남도 사찰 자료 전시

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중에는 1910년~1936년에 걸쳐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사하였던 사찰과 문화재들의 자료가 남아 있다. 송광사, 화엄사, 선암사, 백암사, 대흥사와 같은 주요사찰의 건축물과 석조문화재는 물론, 도감사, 불갑사, 쌍봉사,



국립나주박물관은 2014년도 테마전시로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남도 사찰의 옛 모습'을 개최한다. 사진은 순천 송광사 우회각의 옛 모습.

보림사, 운주사와 같은 작은 사찰의 문화재

도 꼼꼼하게 사진 찍고 기록했다. 또한 월남산성, 증흥산성 폐사지, 나주 읍성부근의 불교문화재 등 당시 폐사되어 석조물만 남아있는 곳까지 세세하게 조사했다. 초기집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사찰과, 사

찰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들의 질박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은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은 문화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061)330-7821

정혜숙 기자

Advertisement for Buddhist shopping items including sutras, prayer wheels, and incense. It features various product images and prices, such as '경전사경' (Sutra Sets) and '대형 금강경 탑다라니 사경지' (Large Golden Sutra Prayer Wheel). Prices range from 150 to 60,000 won.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동진기획·붓다쇼핑' and a website 'www.buddhashopping.com'.